

이대 통역번역대학원 번역 시험 (2006년 11월)

제공: 정영한 박사 <www.englishtop.com>

1. 다음 글을 한국어로 번역하시오.

The problem of evil has long been the province of philosophy. Philosophy is not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at question anymore. (Nor is the world much interested in philosophy, but that is another matter.) Journalism has taken up the slack. Unfortunately, journalism is not terribly well equipped to handle it, principally because journalism is a medium of display and demonstration. When evil is the subject, the urge to display leads to dark places indeed.

The principal defense against these charges is perhaps best called the cult of objectivity. Journalists are led to believe, and some may actually believe, that they only hold a mirror to life. And mirrors can hardly be accused of bad faith. After all, the idea of neutrality inheres in the very word medium. There is a story out there to be got, and as Sam Donaldson, prominent preacher of this doctrine, puts it, "It's our job to cover the story . . . we bring information."

Not even physicists, practitioners of a somewhat more exact science, have so arrogant a belief in the out there. For 60 years, physics has learned to live with its Uncertainty Principle: that the act of observing an event alters its nature. Journalism continues to resist the idea. And journalism, which shines lights at people, not electrons, does more than alter. It creates. First, out of the infinite flotsam of "events" out there, it makes "stories." Then, by exposing them (and their attached people, ideas, crimes), it puts them on the map. "As seen on TV" gives substance to murder. The parade of artifacts is varied, but the effect is the same: coverage makes them real.

2. 다음 글을 영어로 번역하시오.

많은 한국 경제학자들은 복지정책 때문에 유럽의 실업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후한 실업급여와 강력한 노조 등이 기업의 수익과 기업가 정신을 갉아먹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들은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해 유럽의 노동시장과 경제 전체를 미국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알 수 있다. 유럽 경제가 꾸준히 성장한 반면 미국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은 결과 25~54살 사이 핵심 노동계층의 취업률은 서유럽과 미국이 거의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미국 핵심 노동계층의 지난해 고용률은 79.3%였다. 유럽연합(EU) 초기 가입국 15개국의 평균 고용률 78.2%와 비슷하다. 1.1%포인트의 차이는 서 유럽인들에게 수십 년간 안정을 보장 해온 시스템을 재검토할 정도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 미국 핵심 노동 계층 남성의 고용률은 86.9%로, 서유럽의 86.6%보다 기껏 0.3%포인트 높다.

물론, 청년층에서 미국과 유럽의 고용률은 크게 차이가 난다. 이 점에서 유럽이 미국에 뒤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격차의 일부는 정책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유럽에서는 대학 교육, 심지어 그 이후의 교육도 상대적으로 싸거나 무료다. 많은 학생들이 생활비에 보태 쓸 보조금을 정부에서 받는다. 반면, 미국에서는 대학교육비가 상당히 비싸다. 이 때문에 대학에 진학한 젊은이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생계비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

중고등학교 교육과 관련해 유럽식과 미국식 모델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한국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유럽 국가들은 학비가 싸거나 없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 대신 학교를 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는 바로 유럽 복지정책의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이 스태그네이션(경기침체)과 높은 실업률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유럽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

이대 통역번역대학원 번역 시험 모범 답안 (2006년 11월)

제공: 정영한 박사 <www.englishtop.com>

1. 영한 번역

악이라는 문제는 오랫동안 철학의 관심 분야였다. 그러나 철학은 이제 악이라는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세상도 철학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제는 언론이 철학이 떠난 자리를 이어 받았다. 불행하게도 언론은 악이라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역량을 아주 잘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 주요한 이유는 언론이 사실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매체가기 때문이다. 악이 주제일 때, 그것을 보여주려는 충동이 정말로 암흑의 세계로 이끌게 된다.

이러한 혐의들에 대항하는 주요한 변론은 아마도 ‘객관성에 대한 숭배’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언론인들은 자신들이 삶을 비추는 거울을 쥐고 있을 뿐이라고 믿게 되고, 그들 중 일부는 정말로 그렇게 믿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거울에 대해 부정적하다는 비난을 거의 할 수 없다. 뭐니 뭐니 해도, 중립성이라는 개념은 매체를 뜻하는 바로 그 영어 단어 medium(‘중간’이라는 어원을 지님)에 내재하고 있다. 세상에는 얻어야 할 기사거리가 있으며, 이 신조의 저명한 주창자인 샘 도널드슨이 말하듯이 “기사거리를 취재하는 것은 우리의 직무이다 …… 우리는 정보를 전달한다.”

심지어 다소 더 정밀한 과학을 행하는 물리학자들도 외부세계에 대해 그 정도로 오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60년 동안 물리학은 불확정성의 원리와 공존하는 법을 터득했다. 즉, 어떤 사건을 관찰하는 행위로 인해 그 사건의 본성이 변한다는 것이다. 언론은 이러한 원리에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電子)가 아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언론은 변화 이상의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은 바로 창조이다. 우선 세상의 무한한 ‘사건들’의 잡동사니로부터 언론은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들(그리고 이와 결부된 사람들, 생각들 그리고 범죄들)을 드러냄으로써, 언론은 이 이야기들은 세상에 알린다.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바와 같이”라는 표현은 살인에 실체를 부여한다. 언론이 창조한 일련의 이야기들은 다양하지만, 그 영향은 동일하다. 즉, 보도로 인해 이 이야기들이 실체가 되는 것이다.

2. 한영 번역

Many Korean economists think that Europe has high unemployment rates because of its welfare policy. Their argument is that lavish unemployment benefits, powerful unions, etc. are undermining the profits of enterprises and entrepreneurship. Therefore, they suggest, the European system should be changed. To put it another way, the labor market and the economy as a whole of Europe should be transformed in line with the American style.

However, a closer look at their argument proves them wrong. The European economy has grown steadily, whereas the U.S. economy has gone through a long economic recession. As a result, the employment rates of the major working population between the ages of 25 and 54 are almost the same in the two regions.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he employment rate of the major working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was 79.3 percent last year, which is similar to the average rate (78.2 percent) of the first 15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EU). This 1.1 percentage point difference is not enough to serve as a basis to call for an overhaul of the system that has guaranteed stability to Western Europeans for decades. The employment rate of the major male working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is 86.9 percent, a mere 0.3 percentage point higher than 86.6 percent of Western Europe.

It is true that the difference in the employment rates of the youth of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s significantly wide. In this respect, Europe may seem to lag behind the United States, bu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at part of this difference results from government policies. In Western Europe, education in university or even beyond is relatively inexpensive or free. Many students receive grants from the government to pay for some of their living expenses. In contrast, university tuition fees in the United States are considerably high. Therefore, most youngsters who go to university must work in order to earn their living expenses and tuition fees.

Some Koreans have a debate on European and American models with regard to secondary education. However, whatever people of other countries say, European nations are clearly aware that since they have low or no tuition fees and provide sufficient assistance to students, many youngsters choose universities over jobs. This is one of the goals of Europe's welfare policy.

There is no evidence that this policy has led to stagnation and high unemployment rates. Therefore, the time has come to discard distorted views about Europe.